

ACE 10 : 거룩한 공회

마태복음 16 : 15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 :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 :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 :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은 사도 신경 강해의 열 번째 순서로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구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에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문에는 이 구절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믿으며’ 가 따로 떨어진 내용이며, 또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 따로 떨어진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두 part 로 나누어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과,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따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룩한 공회를 강해 함에 있어서,

1. 공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2. 공회는 왜 거룩한가?
3. 지상 교회가 거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길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먼저 거룩한 공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회는 교회(church)를 말합니다.

거룩한 공회는 **Holy Catholic Church** 를 우리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Catholic 의 뜻은 ‘**보편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oly Catholic Church 는 Roman Catholic Church 믿으며

하는 것은 Roman Catholic Church 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보편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느날 밤 어떤 미국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분의 아내는 한국 사람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영어에는 분명하게 I believe the holy catholic church;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로만 카톨릭이 아닌데 왜 내가 로만 카톨릭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하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만 카톨릭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보편 교회의 거룩을 믿는다는 말이라고 대답해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ekklesia** 라는 말과, **kyriakon** 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먼저 **ekklesia** 는 ‘**밖으로**’ 의 뜻을 가진 ‘**ek**’ 라는 말과, ‘**불러내다**’ 의 뜻을 가진 **kleo** 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밖으로 불러 내다**’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ekklesia** 는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불러낸 백성들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church** 는 ‘**주의 것**’ 을 의미하는 **kyriakon** 이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문자 그대로 **주님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Holy Catholic Church)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주의 것으로 불러냄을 받은 보편 교회가 거룩함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1.1 그러면 보편 교회는 무슨 뜻인가요?

마태복음 16 : 15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 :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 :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 :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종교 개혁자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신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교회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장소가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 를 ‘너는 베드로라’ 한 말의 베드로 개인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가 Roma 의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여, 로마 교회의 bishop 단(團) 만이 베드로를 이어받은 사도성을 가진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반석이 베드로 개인을 지칭한 것이면,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인 16:23 에서,

마태복음 16 :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신 말씀에서 ‘너는’ 베드로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너는’ 베드로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만약 카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너는’ 이 베드로 개인을 지칭한다면, 베드로는 사단이며, 로마 교회 bishop 단(團)들은 베드로의 사탄의 성격도 함께 이어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역사상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교회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 교회라는 말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모두 하나요 같은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모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같은 교회입니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Invisible Church), 또는 무형 교회라고 합니다. 반대로 지역에 보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 유형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아니라 1 세기의 성도들이나 2 세기의 성도들이나, 또는 어제 소천을 받아 하나님께로 간 성도라 할지라도, 모두 지금 영적으로는 살아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천상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23 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the general assembly and church of the firstborn)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the spirits of just men made perfect(KJV))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2 : 23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들이나 우리나라 비록 존재양식은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같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천상 교회나 지상 교회에 있는 성도나 모두 같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보편 교회의 의미입니다. 공회의 의미입니다.

칼빈은 이 거룩한 공회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막론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상 교회나 지상 교회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형제로 있습니다. 지상 교회에 있어서도, 감리 교회든, 장로 교회든, 침례 교회든, 천주 교회든, 모두가 교회 이름만 다를 뿐 한 하나님의 자녀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사람은 천상 교회에 있으며, 아직 지상에 남아 있는 우리는 지상 교회에 있을 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지상 교회와 천국 교회의 만남은 예수님의 재림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을 다 데리고 재림하시며, 지상 교회는 공중으로 들려 올리는 휴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보다 먼저 보낸 그리운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 있는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1.2 믿음의 내용

초대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 세기에 존재했던 교회도, 2 세기에 존재했던 교회도, 3 세기에 존재했던 교회도, 지금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모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미래의 교회도 다 같은 믿음을 갖어야 합니다. 모두 똑같이 사도 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3 교회에 대한 다른 표현들

1.3.1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유기체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 :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유기체의 특징은 성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는 각 성도가 살아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하는 기관입니다.

[에베소서 4 :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 :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 : 24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의 유기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핍박의 선봉에 섰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9 : 4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도행전 9 : 5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상처를 내는 것은 모두 예수님 당신에게 행한 것이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3.2 성령의 전 혹은 하나님의 성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과 비기신 것과 일치합니다(요 2: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것이라).

고린도전서 3 :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성령을 마음 속에 모신 각 개인들을 교회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인 bishop 단(團, college)이 각 개인을 교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 : 17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신 말씀은,

각 사람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도록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지, Bishop 단(團, The College of Bishops)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6 : 65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 되시지, Bishop 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Protestant 에게 있어서 성령을 마음 속에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일치는 **성령의 교통**에 둡니다. 그러나 카톨릭에 있어서의 교회의 일치는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 받았다는 bishop 들의 가르침 안에서 일치를 찾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성도와 성령의 교통에 둔다는 것은, 어쩌면 구체적이지 못하고 막연한 것 같지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계심을 믿을 수 있으면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임이든 모임에 앞서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 각 사람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전체가 하나로 통일되고, 성령의 자라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에베소서 2 :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서 2 :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2.3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히브리서 12 : 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히브리서 12 : 23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요한계시록 21 :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는 오늘 교회를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언약하셨지만(창 12:2, 15:4-6, 17:19, 아브라함이 점점 늙어 감에도 후사를 얻지 못하자, 사라는 자기의 여종 애굽 여자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후사를 얻고자 합니다(창 16:1). 이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불신앙의 소산인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라의 태가 죽을 것 같이 되고 아브라함이 마치 마른 가지처럼 말라 생산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 약속하신 후사인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육적 후손(Ethnic Israel)인 이스라엘 민족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순전히 기적으로 출생한 약속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약속에 의해 기적으로 태어난 이삭을, 약속에 의해(창 3:15) 기적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며,

갈라디아서 3 : 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 의해 태어난 영적 후손인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6 : 16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육적 후손(Ethnic Israel)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땅의 예루살렘이며, 영적 이스라엘(Spiritual Israel)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성한 장소가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 영적 예루살렘에서 영적 이스라엘(Spiritual Israel)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 장 21 절에서 31 절 까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율법아래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을 율법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율법아래 있는자들이 율법을 받은 곳이 바로 시내 산이며 이 시내 산은 바로 하갈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 : 25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증노릇하고

이 하갈에서는 종이 태어나며 종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 : 25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증노릇하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하여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에 의해 사라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 : 23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사라에게서는 약속에 의해 아들이 태어나며,

갈라디아서 4 :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갈라디아서 4 :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율법아래 있는 자들 -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들 - 종을 낳은 자 - 하갈로서 비유된다.- 이스마엘 - 땅의 예루살렘

복음 아래 있는 자들 -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자들 -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들 - 이삭 - 하늘의 예루살렘

1.2.4. 진리의 기둥과 터

디모데전서 3 : 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1 Tim. 3:15 (NASB)

but in case I am delayed, I write so that you may know how one ought to conduct himself in the household of God, which is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the pillar and support of the truth.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집은 household로서 가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만형으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demonstration 하고 display 하는 도구라는 의미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교회는 왜 거룩한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 교회의 거룩성

고린도전서 1 :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 1 :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 :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방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이 깊은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상 교회가 거룩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 드러져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church 는 원래 ‘주님께 속한 것’ 을 의미하는, 쿼리아콘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 드러진 것,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다음에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은 자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우리를 깨끗케 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거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받아들여 질 수도 없습니다.

다음에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가 목표하는 바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벧전 1:15-16).

베드로전서 1 :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 : 16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품성과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지상 교회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때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며,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2.2 지상 교회가 거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길.

지상 교회가 지속적으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선 성령의 거룩케 하심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며, 권징이 올바르게 집행될 때 거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250 A.D. 로마의 Decius 황제 때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불태우기를 강요받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요구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핍박이 끝나자 교회에서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일시적으로 강요에 의해 배교하였던 사람들을 교회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타협한 사제들을 다시 강단에 받아 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용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주신 권위("the power of the keys" 마 16:19; 요 20:23)를 사용하여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 때 신사 참배한 목사들의 복권 여부가 교계에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결국 후자를 택하였습니다.

그 때 교회에서는 교회가 정한 통회와 참회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의 용서에 의해 다시 복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에서 적절한 권징(Discipline)이 교회 안에서 행해질 때 교회는 도덕적 순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칼빈은 강조했습니다.

마태 복음 16:19 과 요 20:23 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용서할 수 있는 권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 :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폴리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20 : 23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 범죄한 사람을 스스로 권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직접 나서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 : 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전서 5 : 2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적절한 권징 후에 교회에서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 : 6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2 : 7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2 : 8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와 같이 교회는 자신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eg. 이와 비슷한 문제가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구절: 왕상 14:24; 고전 6:9; 딤후 1:10; 롬 1:26-27)

고린도전서 6 :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
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고린도전서 6 : 10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 Cor. 6:9-10

Or do you not know that the unrighteous sha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 not be deceived; neither fornicators, nor idolaters, nor adulterers, nor effeminate, nor homosexuals, [10] nor thieves, nor the covetous, nor drunkards, nor revilers, nor swindlers, sha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죄임을 인정하고, 죄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 올 수 있지만, 죄가 아니라고 하며 계속 죄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